

4. 마을의 특징

1) 사찰(寺刹)

오개곡(五個谷)에 조계종(曹溪宗)인 보광사(普光寺)가 있다.

2) 성황당(城隍堂)

오개곡(五個谷)의 좌측 산줄기에 사당이 있는데, 엄선된 제관(祭官)이 매년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3) 해당안(海棠岸)

마을 옆과 앞의 제방에 해당화(海棠花)가 만발하면 경관(景觀)이 아름다웠다고 하여 해당안(海棠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제14절 읍남2리(邑南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남대천(南大川)을 경계로 하여 읍내2리와 읍내3리가 있으며, 남쪽으로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수산리(守山里)의 비래봉(飛來峰)이 있고, 관동팔경(關東八景)인 망양정(望洋亭)이 바라보인다. 북쪽은 읍남3리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마을이 언제 개척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600년경에 마을 앞 냇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나무토막에 지로(旨老)라 기록된 것을 보고 마을 이름을 지로동(旨老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1750년경에 울진현(蔚珍縣)의 객관(客館) 동편에 목재(木材) 누정(樓亭) 2칸이 있었는데, 마을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을 말루(抹樓)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마을회관은 2017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가구분포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강릉 유씨(江陵劉氏),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주종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개골동

마을이 골(谷)에 있다 하여 개골동(漑谷洞)이라 부른다.

2) 뒷섬골

옛날부터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이 잘 되었는데 1되의 씨를 뿌려 1석(石)의 수확을 하였으므로 뒷섬골이라 부른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앞 들판 가운데에 사당이 있고 그 주위에 오래된 고목(古木)으로 된 성황당이 있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제15절 읍남3리(邑南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뒷산 너머에 읍내2리가 있으며, 남쪽은 읍남2리인 말루(抹樓)와 접하고, 북쪽은 연지1리인 현내동(縣內洞)이다.

2. 마을의 역사

1750년(영조 26)경에 홍천 용씨(洪川龍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마을을 ‘공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조선조에 공세(貢稅)를 관장하던 창고가 소재한 곳으로 ‘공세’가 변하여 공석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조 한양으로 해산물[건문어, 전